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김성수* · 정지웅* · 임형백** · 고운미*** · 김정태**** · 이 성*****

*서울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강사 · ***공주대학교 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포스코 인재개발원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for Supporting U-turn Farmers' Rural Settlement

Sung Soo Kim* · Ji Woong Cheong* · Hyung Baek Lim** · Woon Mee Koh*** ·
Jung Tae Kim**** · Sung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Kongju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Posco HRD Center

Summary

The purposes for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ers' based on their needs on rural settlement. Special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1) to surve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turn farmers including motives, preparation, and education, 2) to investigat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the U-turn farmers in rural settlement, 3) to identify the reasons for success and failure in U-turn farming, and 4) to provide information in developing programs for U-turn farmers.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526 U-turn farmers throughout the country, and after data cleaning, 494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were recommend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U-turn farming programs;

1) to facilitate and expand continuous surveys on the motives, preparat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U-turn farmers will be necessary to update the important and current information on U-turn farming. 2) Further examination of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U-turn farmers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ppropriate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ing. 3) continuous investigations on the reasons for success and failure of U-turn farming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ppropriate agricultural policies. 4) for more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ers, selection of educators, institution, curricular and timing etc.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meet the practical needs of the U-turn farmers. 5) more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U-turn farming.

Key Words : U-turn Farmer, Program Development, Rural Settlement, Educational Program

I. 서 론

외환위기시대를 맞이하여 경기 불황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실업의 위기에 처한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U-turn 귀농을 하였으며, 계속되는

불황과 실업 등으로 인해 귀농을 희망하는 잠재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1998년 4월말까지 귀농가구수는 모두 9,881가구였다. 특히 IMF의 영향으로 불황의 찬바람이 몰아친 1997년 하반기부터는 젊은

청·장년을 비롯한 도시인들의 귀농인구가 급증하였으며, 1998년에는 1월에서 4월까지 2,713 농가가 귀농하였다(박영일, 1998).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2003년 12월 11일 '귀농운동 8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귀농운동본부 성시경 사무처장은 "지난 8년 동안 3,500여명이 각종 귀농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이 가운데 13~15%가 귀농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 기에 50명이 교육을 받으면 그 중 10명쯤이 2~3년 안에 귀농하고 여기서 1명쯤은 귀농에 실패해 도시로 돌아간다. 반면 IMF 구제금융 사태 때 무작정 귀농한 사람들의 90% 이상은 도시로 돌아갔다. 이는 철저한 준비가 귀농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한계레신문, 2004.01.01). 연령층을 보면 40세 미만이 전체의 49.9%가 되고 있어 이는 농업분야에 창의적인 경영능력을 제공하는 인적자원으로 큰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외환위기에 따른 영향은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의 고용기회에 더욱 악영향을 끼쳐, 도시에서의 고용기회는 농촌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장년층의 고용기회는 도시의 경우보다 농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우·임형백·고금석, 2003; 이성우·임형백·조중구, 2003). 따라서 성공적인 귀농은 도시실업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귀농자들은 대부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계없이 무작정 귀농한 경우, 영농기반, 영농자본 부족, 영농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귀농자 특별대책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이 지원은 귀농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귀농자가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영농기술, 노동력 등 영농능력이 고려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영농창업 투자자금의 규모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 어느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고 또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그 영농유형의 모델은 각기

여러 가지 대안이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가상적인 투자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귀농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박영일, 1998). 또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보를 파악하고 요구에 맞는 정보와 교육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귀농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귀농자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저마다 필요성에 의해 귀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귀농자들의 교육요구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단기 귀농자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따라서 도시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귀농하겠다는 결정을 한 귀농자들이 농촌에 잘 적응하고 농촌에서 그들이 젊은 활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귀농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성공적인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최근에 귀농한 농업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귀농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귀농시 애로사항, 귀농교육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귀농자의 정의

김형용(1998)은 귀농자를 과거에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출했다가 다시 농촌에 돌아와 영농을 하는 자 또는 과거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인이 농촌으로 가서 영농을 새로이 시작한 자로 정의하였다. 박영일(1998)은 농촌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를 U-turn 귀농자로 정의하였고, 도시출신 또는 재촌(在村) 비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농업을 직

업으로 종사하는 자를 취농자(取農者)라 하였다. 귀농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농촌출신으로서 도시에 거주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U-turn 귀농을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MF 이후 도시에서의 일자리감소, 조기·정년 퇴직 이후 조용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귀농하는 형태도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귀농을 U-turn 귀농에만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한 귀농배경과 경로로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귀농의 경로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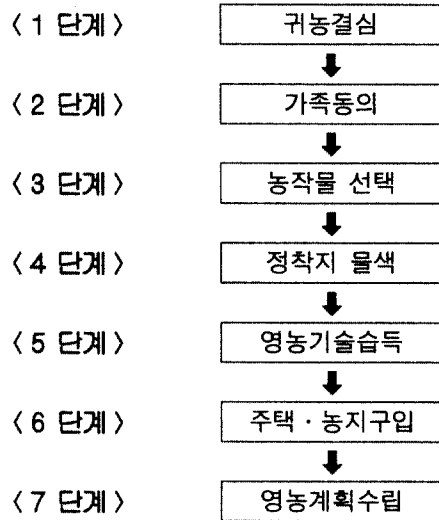
귀농자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U-turn 귀농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향인 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에 다시 고향농촌으로 되돌아 온 귀농자를 의미한다. U-turn 귀농자는 현재 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의 영농은퇴 이후 영농을 이어받기 위한 경우, 농촌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우, 농촌에 뜻을 두고 귀농하는 경우처럼 계획적인 U-turn 귀농자도 있고, 도시 생활에 정착한 후에 실직이나 조기퇴직,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기타 도시로부터의 추출요인(pushers)에 의하여 고향농촌으로 귀농하는 추출된 U-turn 귀농자도 있다.

그리고 U-turn 귀농자와 비교되는 귀농자 유형으로 I-turn 귀농자와 J-turn 귀농자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I-turn 귀농자는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자를 말하고, J-turn 귀농자는 U-turn 귀농자와는 달리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하는 귀농자를 말한다.

2. 영농정착 과정

영농정착은 영농인이 농장운영에서 전적인 혹은 부분적인 책임을 갖고 있을 때를 일컫는다. 그 형태로서는 ①농장을 운영하여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②농장을 관리 운영하는 소작인, ③농장경영관리인, ④이상의 모든 형태에 속한다(박영일, 1998).

영농정착 과정이란 도시인 등으로서 농업의 특성을 알고 검토·분석·탐색 후, 계속적인 관심속에서 영농정착을 위하여 준비하고, 토지·자본 등을 투자, 영농에 정착하여 자립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연속된 과정을 말한다. 신규창업을 위한 귀농자들이 귀농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림 1> 귀농과정

출처: 매일경제신문 1998.02.21일자.

<표 1> 귀 농 경 로

구 분	농촌→도시→고향농촌	농촌→도시→타향농촌	도시→농촌	이동없음	기타	합 계
가 구 수(호)	205	50	99	6	6	366
구 성 비(%)	56.0	13.7	27.0	1.6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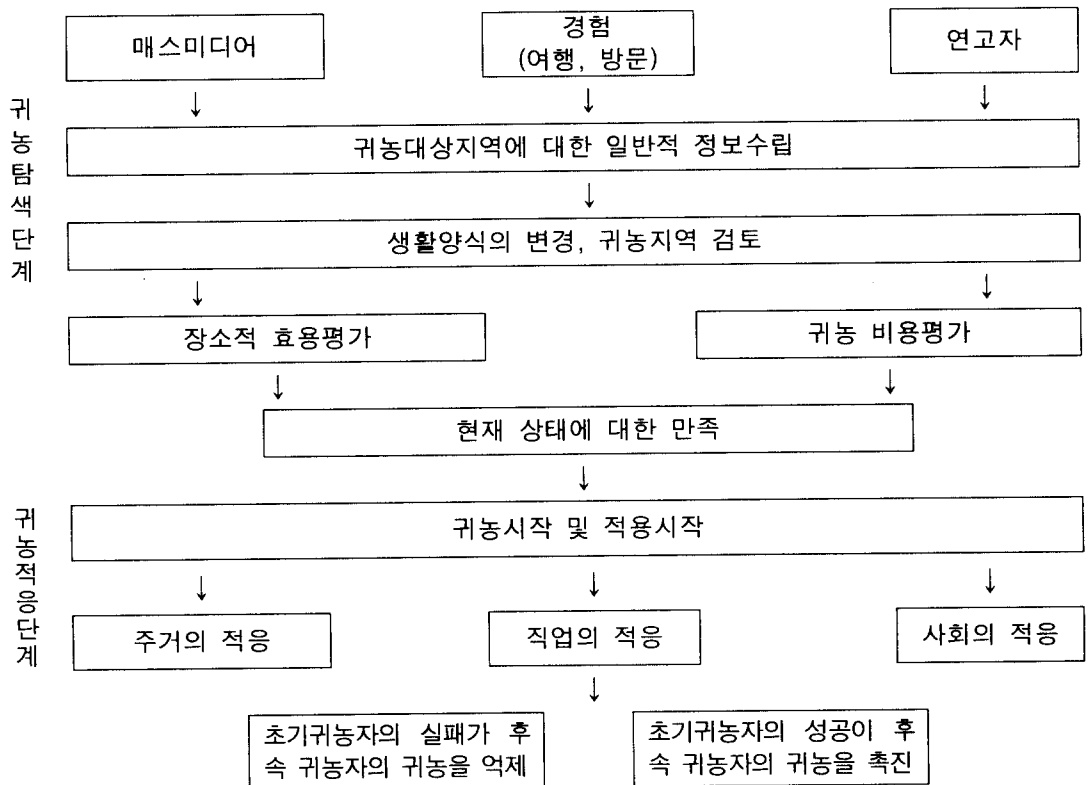
출처: 농촌진흥청, 1998.

경제적 불경기로 인해 실업자의 돌파구로 농촌으로 돌아갈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귀농이 제 2의 직업선택인만큼 영농을 통해 정착하려는 잠재적 요인도 있다. 직업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적성, 직업에 대한 흥미, 성격상의 특성, 부모부양, 경제적 상황, 신체적 장애 여부 등과 직업만족도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Tolbert, 1974; 박영일, 1998 재인용). 또한 귀농은 일종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과정이다. 여기에도 귀농탐색, 귀농의사결정, 귀농준비, 귀농시행, 귀농적응 및 유지발전 등의 직업발달과정을 겪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이주자들은 이입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즉, 지식, 기술, 정보, 농촌경험, 재산 등이 부족할수록 이주과정에서부터 이입지 정착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크게 이주과정에서의

노력과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의 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배성의 외 2인, 1998)

귀농은 또한 인구의 이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Fielding(1974)은 이주 과정을 이주 동기의 형성, 이주 의사결정, 이주 실행까지의 이주 탐색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이주 적응단계로 나누었다. 특히 이주자가 이입지에서의 주거, 직업, 사회적 욕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환이동을 하거나 제이주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적응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돕거나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은 후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귀농 적응의 단계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귀농자의 귀농과정은 귀농 탐색단계, 귀농 준비단계, 귀농시행단



<그림 2> 귀농 적응의 2단계 과정

출처: Fielding, 1974: 215.

계로 구분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귀농과정으로는 귀농탐색, 귀농의사결정, 귀농준비, 귀농시행 및 적응 등 4단계 이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귀농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와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I.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귀농현황 관련자료 및 문헌고찰을 하였다. 관련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의 조사도구를 참조하여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통하여 조사도구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조사도구를 귀농자 교육참석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2000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전국에 있는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1,2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된 526부 중에서 응답자의 실수 및 기타 이유로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32부를 제외한 494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각 도별로 5인을 선정하여 총 45명에 대하여 조사자들이 비구조화된(unstructured) 설문지를 이용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배포매수	회 수		분 석	
	회수매수	회수율	분석매수	분석율
1200	526	44.0 %	494	94.0 %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 귀농자의 일반적 특성

1) 귀농자의 귀농이전 직업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491명의 귀농 이전 직업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회사원이 187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영업이 175명(35.6%)이었다. 그 외에 노무자, 공무원, 무직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이후 조기·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퇴직자와, 퇴직후 남은 여생을 농촌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귀농이전 직업

구 분	빈 도(명)	백 분 율(%)
회 사 원	187	38.1
자 영 업	175	35.6
공 무 원	23	4.7
노무자(노동)	36	7.3
무 직	6	1.2
기 타	64	13.0

2) 귀농자의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았다. 고졸이 226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이 123명(25.1%)으로 나타났다. 귀농자의 교육수준에서 고졸과 대졸이 가장 많은 것은, 이들이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할 경우 고령화된 농업인구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 귀농자의 교육수준

구 분	빈 도(명)	백 분 율(%)
국 졸	27	5.5
중 졸	71	14.5
고 졸	226	46.0
전 문 대 졸	44	9.0
대 졸	123	25.1

3) 귀농전 영농경험 유무

조사대상자의 귀농 전 영농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영농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99명(40.5%), 영농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92명(59.4%)으로 나타났다. 귀농전 영농경험을 가진 사람이 40.5%

에 달하는 것은 귀농의 성공적인 정착에 유리할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귀농전 영농경험 유무

구 분	빈 도(명)	백 분 을(%)
있 다	199	40.5
없 다	292	59.4

4) 귀농동기

조사에 응답한 귀농자들의 귀농을 하게 된 이유는 위의 〈표 6〉과 같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94명(19.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에 실패해서 귀농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명(17.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귀농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8명(15.9%)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농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53명(10.8%), 전원생활 및 건강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명(9.8%)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귀 농 동 기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농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서	53	10.8
영농생계를 위하여	46	9.4
노후대비로	51	10.4
사업실패	86	17.5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78	15.9
전원생활 및 건강	48	9.8
인간다운 삶을 위해	94	19.1
기타	35	7.1

5) 귀농 후 가족구성원의 부업 종사여부

귀농 후 조사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중 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은 〈표 7〉과 같았다. 배우자가 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08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부업을 하는 경우가 60명(12.2%)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응답자가 296명(60.2%)로 부

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는 귀농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소득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가족구성원의 부업종사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본 인	60	12.2
배우자	108	22.0
그 외 가족구성원	27	5.5
없다	296	60.2

6) 부업종사 이유

부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표 8〉과 같았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하는 경우가 148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있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경우가 21명(4.3%)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서가 14명(2.9%) 등으로 나타났다.

〈표 8〉 부업종사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당장의 생계를 위해	148	30.1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	14	2.9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21	4.3
기타	16	3.3
무응답	192	59.5

2. 조사대상 귀농자의 기타 분석결과

1) 귀농 초기 애로사항

귀농 초기 어려웠던 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9〉와 같았다. 영농자금 조달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150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또는 가축구입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명(16.3%),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이 75명(15.3%)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녀교육문제, 노동 대가에 대한 저소득, 관청의 인

허가 절차의 복잡함 등이 귀농자들이 초기에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표 9〉 귀농 초기 애로사항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농지 또는 가축 구입	80	16.3
영농자금 조달	150	30.5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	75	15.3
작목선택 문제	16	3.3
부모 이해부족	6	1.2
배우자의 이해부족	23	4.7
자녀교육문제	34	4.9
지역주민과의 갈등(텃세 등)	15	3.1
과다한 노동	13	2.6
주택구입	13	2.6
결혼문제	4	0.8
의료시설 미비	2	0.4
관청의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	21	4.3
노동 대가에 대한 저소득	29	5.9
대출의 까다로움	19	3.9
기타	1	0.2

2) 귀농자금 출처

귀농을 위해 마련한 귀농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았다. 자산(주택, 땅 등)을 처분하여 마련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2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을 귀농자금으로 준비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6명

〈표 10〉 귀농자금 출처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퇴직금	116	23.6
자산처분(주택, 땅 등)	252	51.3
사채(가족, 인척, 친구)	25	5.1
부모의 재산상속	23	4.7
은행융자	36	7.3
기타	39	7.9

(23.6%)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에 은행융자, 재산상속, 사채 등을 통해 귀농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귀농정책자금 신청여부

조사 대상 귀농자들이 귀농정책자금을 신청했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았다. 귀농정책자금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1명(71.5%)으로 나타났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49명(28.5%)으로 나타났다.

〈표 11〉 귀농정책자금 신청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예	351	71.5
아니오	149	28.5

4) 귀농정책자금 수령여부

귀농정책자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는 〈표 12〉와 같았다. 수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21명(45.0%)으로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귀농정책자금 수령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예	221	45.0
아니오	233	47.5
무응답	37	7.5

5)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3〉과 같았다. 대상자가 아니라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6명(11.4%)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8명(9.8%)으로 나타났다. 또 담보가 없어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36명(7.3%)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쟁자가 많

아서, 정책자금의 이용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답보가 없어서	36	7.3
경쟁자가 많아서	34	6.9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48	9.8
빚이라 생각해서	28	5.7
충분한 자금이 있어서	6	1.2
대상자가 아니라서	56	11.4
정책자금의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28	5.7
생산성 있는 자금이 아니라	6	1.2
기타	28	5.7
무응답	221	45.0

6) 자금의 사용내역

귀농을 위해 준비했거나 귀농정책자금을 신청하여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해본 결과는 〈표 14〉와 같았다. 농지구입을 위해 준비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9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영농시설 및 자재구입을 위해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5명(25.5%)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금의 사용내역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농지 구입	139	28.3
농기계 구입	44	9.0
영농시설 및 자재 구입	125	25.5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비용	28	5.7
주택 구입 및 개량비용	55	11.2
생활비	16	3.3
자녀교육 및 생활비	11	2.2
운영자금	23	4.7
가축 구입	27	5.5
기타	23	4.7

7)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방법

조사대상 귀농자들의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았다. TV·라디오·신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27명(4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웃농가·작목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0명(20.4%)으로 나타났다. 산지수집상·중도매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7명(15.7%)으로 나타났다.

〈표 15〉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방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TV, 라디오, 신문	227	46.3
컴퓨터 통신	28	5.7
산지 수집상, 중도매인	77	15.7
이웃농가, 작목반	100	20.4
전문지도사	7	1.4
수집하지 않음	36	7.3
기타	16	3.3

8) 농산물을 주로 출하하는 곳

농산물을 출하하는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았다. 산지농협이나 농협공판장에

〈표 16〉 농산물을 주로 출하하는 곳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산지시장·수집상	116	23.6
산지농협, 농협공판장	155	31.6
유사도매시장	27	5.5
법정도매시장, 물류센터	50	10.2
대형매장(백화점 포함)	5	1.0
직판	39	7.9
생활 협동조합(직거래)	24	4.9
기타	34	6.9
무응답	41	8.4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55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산지시장이나 수집상에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6명(23.6%)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도매시장이나 물류시장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명(10.2%)으로 나타났다.

9) 영농 지식과 기술을 주로 획득하는 곳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주로 획득한 곳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7>과 같았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습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7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농민으로부터 습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8명(2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귀농교육을 통해 습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5명(19.3%)으로 나타났다.

<표 17> 영농 지식과 기술을 주로 획득하는 곳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귀농교육	95	19.3
전문서적	68	13.8
농업기술센터	117	23.8
형제 및 친인척	33	6.7
주변농민	108	22.0
농·축협	5	1.0
매스컴(신문, TV 등)	15	3.1
기타	24	4.9
무응답	26	5.3

10) 귀농교육내용의 세분화 정도

귀농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았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45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3명(23.0%)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 귀농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9	5.9
동의하지 않는다	78	15.9
그저 그렇다	145	29.5
동의한다	113	23.0
매우 동의한다	24	4.9
수강사실 없다	102	20.8

11) 귀농교육시기 및 기간의 적절성

귀농교육시기 및 기간이 적절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았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31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23.4%)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귀농교육시기 및 기간은 적절하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9	5.9
동의하지 않는다	82	16.7
그저 그렇다	115	23.4
동의한다	131	26.7
매우 동의한다	32	6.5
수강사실 없다	102	20.8

12) 귀농교육내용의 실용성

귀농교육내용이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았다. 그저 그렇다고 응

<표 20> 귀농교육내용이 실용적이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4	4.9
동의하지 않는다	63	12.8
그저 그렇다	149	30.3
동의한다	124	25.3
매우 동의한다	29	5.9
수강사실 없다	102	20.8

답한 사람이 149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24명(25.3%)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13) 추가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부분

추가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는 <표 21>과 같았다. 특용작물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103명(21.0%)으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 농업 작물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85명(17.3%)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과수, 약용작물, 채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추가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벼농사	22	4.5
화 채	25	5.1
채 소	37	7.5
과 수	51	10.4
특용작물	103	21.0
약용작물	48	9.8
한우·낙농	27	5.5
양 돈	6	1.2
양 계	7	1.4
양 봉	17	3.5
특수가축	17	3.5
친환경농업	85	17.3
기타	12	2.4
무응답	34	6.9

14) 귀농당시 작목 선정기준

귀농당시 작목 선정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았다.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4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1명(26.7%)으로 나타났

다. 그 외에 귀농교육 이수작목, 부모·친척 권유 작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귀농 당시 작목 선정 기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	131	26.7
농업기술센터의 권유	13	2.6
부모·친척 권유 작목	68	13.8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	154	31.4
귀농교육 이수 작목	88	7.7
같은 작목에서 성공한 농민을 보고	49	10.0
무응답	38	7.7

15) 현재 재배하는 작목 선정기준

현재 재배하는 작목의 선정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았다.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42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7명(23.8%)으로 나타났다.

<표 23> 현재 재배하는 작목 선정기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	142	28.9
농업기술센터의 권유	13	2.6
부모·친척 권유 작목	38	7.7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	117	23.8
귀농교육 이수 작목	22	4.5
같은 작목에서 성공한 농민을 보고	29	5.9
귀농 당시 재배하던 작목	57	11.6
기타	36	7.3
무응답	37	7.5

16) 귀농자의 영농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귀농자들의 영농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4>와 같았다. 영농규모에 맞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7명(27.9%)으로 나타났고, 농산물 가격보장 및 판매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9명(22.2%)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영농 기술교육, 농업기반 조성 및 농촌개발사업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귀농자의 영농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영농기술교육	66	13.4
영농규모에 맞는 자금지원	137	27.9
농업기반 조성 및 농촌개발사업 확대	40	8.1
농기계·영농자재의 값싼 공급	43	8.8
농산물 가격보장 및 판매망 구축	109	22.2
실패시 추가자금 지원	17	3.5
충분한 정보제공 및 사전조사 실시	32	6.5
농가 주택마련 지원책	23	4.7
귀농 상담소 상설 운영	14	2.9
기타	10	2.0

17) 귀농 이후 애로사항

조사자들의 귀농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결과는 <표 25>와 같았다. 영농자금조달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140명(28.5%)으로 귀농 초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영농을 어렵게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5명(15.3%)으로 나타났고, 영농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2명(14.7%)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농지부족, 일손부족 등이 귀농자들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25> 귀농 이후 애로사항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일손 부족	63	12.8
농지 부족	64	13.0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72	14.7
과다한 노동	26	5.3
영농자금 조달	140	28.5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75	15.3
농기계 구입 및 수리	6	1.2
지역주민과의 갈등(텃새 등)	6	1.2
대출의 까다로움	19	3.9
판로 개척	14	2.9
품종, 가축 등의 구입 애로	2	0.4
기타	4	0.8

18)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도시생활에 비해 농촌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조사해본 결과는 <표 26>과 같았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6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40명(28.5%)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7명(15.7%)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과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더해보면 보통이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81명(77.6%)으로 나타났다.

<표 26>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3	6.7
만족하지 않는다	77	15.7
그저 그렇다	140	28.5
만족한다	186	37.9
매우 만족한다	55	11.2

19)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그렇다면 그 이

유가 무엇인지 조사해본 결과는 <표 27>과 같다.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304명(62.0%)으로 나타났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21명(24.6%)으로 나타났다.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그 이유로는 낮은 소득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5명(31.6%)으로 나타났고, 자녀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87명(17.7%)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낮은 사회적 인식, 고된 농사일, 열악한 교통·문화여건 등의 이유로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교육 여건	87	17.7
교통·문화여건	8	1.6
의료여건	8	1.6
낮은 소득	155	31.6
고된 농사일	16	3.3
지역 주민과의 갈등	7	1.4
낮은 사회적 인식	16	3.3
돌아가고 싶지 않다	121	24.6
기타	7	1.4
무응답	66	13.4

V. 결 론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 귀농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 U-turn 귀농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둘째 귀농이전에 회사원(38.1%), 자영업(35.6%)에 종사하던 경우가 많았다. 셋째 귀농자의 교육수준은 고졸(46.0%), 대졸(25.1%)로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었고, 넷째 40.5%가 영농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귀농동기는 사업실패(17.5%), 인간다운 삶을 위해(1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귀농 후 영농수입은 충분하지 못하여 가족 중 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44.2%에 달하였다. 귀농초기의 예로사항으로는 영농자금 조달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농지 등 영농기반 구입(16.3%)이었다. 귀농자금은 퇴직금(23.6%), 자산처분(51.3%)이 가장 많았다. 귀농자금은 71.5%가 신청하여, 이 중 45.0%가 귀농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농자금은 대부분 농기계 구입·시설자금(30.5%)으로 사용하였다. 귀농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경우가 58.3%로 가장 높았으나, 귀농교육에 관하여는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이, 교육내용의 세분화(29.5%), 교육시기 및 기간(23.4%), 교육내용의 실용성(30.3%)로 나타나 교육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배 작목의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28.9%)이 가장 높았고, 농촌생활에 대해서는 3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소득(31.6%)과 자녀교육여건(17.7%)이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고 싶은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

최근 8년 동안 3,500여 명이 각종 귀농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이 가운데 13~15%가 귀농으로 이어졌다. 한 기에 50명이 교육을 받으면 그중 10명쯤이 2~3년 안에 귀농하고 여기서 1명쯤은 귀농에 실패해 도시로 돌아간다. 반면 IMF 구제금융 사태 때 무작정 귀농한 사람들의 90% 이상은 도시로 돌아갔다. 이는 철저한 준비가 귀농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젊은 인력의 귀농은 농촌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귀농운동이 유기농업을 하는 가족형 소농을 배출하는 주통로가 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촌·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이성우·임형백·고금석, 2003; 이성우·임형백·조중구, 2003)에서는, 특히 IMF는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의 고용기회에 더욱 악영향을 끼쳐, 도시에서의 고용기회는 농촌보다나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장년층의 고용기회는 도시의 경우보다 농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공적인 귀농은 도시실업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조기정착과

성공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귀농준비단계에서의 충분한 개인적인 준비와 교육, 귀농단계에서의 적절한 정보제공과 지원, 귀농 이후에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더불어 소득과 자녀교육여건 등에서도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VI. 참 고 문 헌

1.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2):205-223.
2. 농촌진흥청, 1998, 귀농농가의 경영모형 길잡이, 수원: 농촌진흥청.
3. 동아일보, 2001, "이슈추적 귀농 실태 조사: 4명에 1명은 도시 U턴," 동아일보 2001.02.19.
4. 매일경제신문, 1998.02.21.
5.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배성의 외 2인, 1998, 귀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7. 이성우·임형백·고금석, 2003, "기회편의으로 측정된 도농간 이동자의 고용기회," 지역연구, 19(1):1-26.
8. 이성우·임형백·조중구, 2003,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결정요인, 1995-2000," 농촌경제, 26(1):15-37.
9. 한계레신문, 2004.01.01
10. Fielding, G. J.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cations.

(2004년 3월 11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